

## “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

### ■ 이종윤 원로목사

미국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의 법률 특별고문관으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실패와 치욕의 자리로 추락한 찰스 콜슨은 미국 사회와 그를 아는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21세기 사도 바울처럼 극적 회심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은 인물로 그를 기억한다. 그는 1931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하여, 미 동부지역의 IVY리그 대학중 하나인 명문 Brown대학을 졸업하고, G.Washington대학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빼어난 인재로, 닉슨 캠프에서 일하다 닉슨의 신임을 받아 최고 권력 실세로 등장한다. 닉슨 재선운동을 하다가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하였다는 소위 Watergate사건의 주범이 되어 언론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1973.8.12. 저녁 그의 친구인 토마스 필립 집에 초대되어, 빌리 그래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간증을 듣고 콜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 그날 친구는 C.S.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다. 이 책의 첫 장을 펴는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 는 말을 하며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날 밤 예수를 만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견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크리스천이 된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거뜬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라고 말해 Watergate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개종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수감되면서 철저한 기독교인이 된다.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도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려 죄수번호 23226번으로 불려졌다” 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TV로 그가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고 그의 자서전에서 기술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고 한다. 콜슨은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가면서 그의 자만이 부서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성공의 삶은 끝났고, 의미의 삶이 시작되었다.” 콜슨의 의미의 삶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므로 시작된다. 그 무렵 그의 친구 변호사가 대신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조문을 발견하고, 이렇게 영특하고 훌륭한 인재를 감옥에 오래 둘 수 없다 판단하고, 법원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겠다는 신청을 내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후에 콜슨이 듣고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일한 것이 없고 결국 내 명예와 내 유익만 위해 일한 욕심꾸러기인 자신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크게 회개를 했다” 고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날 이후 콜슨은 깊은 기도와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하루에 몇 사람씩 만나 전도를 하며, 후일엔 그들의 빨래까지 대신 해 주고 교도소 청소도 도맡아 했다. 후일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여 텍사스교도소에서 한 동을 빌려 미국 전체 교도소의 재범률이 50%인데, 복음을 전한 후 8%로 떨어지는 기적 같은 열매를 보면서 미국 내 1,300개 교도소와 110개국을 다니면서 수감자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도 그 강연회에 참석하여 많은 감명을 받고 그와 개인 면담 시간을 갖고 나도 “한국에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하겠다” 는 약속을 하고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매월 1회씩 수년간 세미나를 열어 기도와 토론을 거쳐, 그 기구를 이사회로 승격시켜 오늘날 ‘소망교도소’를 열게 되었다. 현재까지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이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서 원망과 시비 대신 감사하던 사도 바울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한국장로신문 [제 1594호] 2018년 5월 12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yung Won J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Mark 14:3-9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Ideal Discipleship (5)" ..... Pastor
* Hymn .....	484 (Be Thou My Vision)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강아급주현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 김력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b>이 종 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주 예수께 받은 사명 ”

### ■ 전 3:1-14, 행 20:17-24, 막 9:29

1991년 10월 6일 169명의 성도가 종교개혁 474주년에 한국교회 갱신의 가치를 들고 50일간 기도회를 마친 후 그해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에 서울교회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일 전 50일간 사명자대회로 지킵니다. 2018년도 사명자대회 표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입니다. 사명의 한자의 뜻은 심부름 할 사(使), 목숨 명(命)입니다. 즉,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 합니다. 사도바울은 행 20:24에서 주 예수께 받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하였습니다.

### 1. 모든 피조물은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생육, 번성, 충만, 경복, 다스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창 1:28). 므드셀라는 969세로 최장수한 인물인데 ‘므두(=죽다)+셀라(=보냄 받다)’ 즉 ‘그가 죽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은 후 홍수 심판이 온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그가 850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969세 때에 방주 문을 닫고 홍수가 임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사명이 끝나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시에 375일간 방주에 갇혔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렸으나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와서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수행토록 명하셨습니다.

### 2.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기도의 파수꾼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종교심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 무한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차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목적입니다.

### 3. 전도의 사도적 사명

로마서 15:16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곧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자는 섬김의 삶을 살고, 확신과 담대한 삶을 삽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신변의 위험이 있을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친척이 있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고, 기도의 파수꾼이며 전도의 사도적 사명자입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강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32:1-2 ..... 인 도 자  
 찬 송 ..... 73(73) ..... 다 함 께  
 기 도 ..... 김은석 집사  
 성 경 ..... 암 6:1-1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너희를 학대하리라" ... 설 교 자  
 \* 찬 송 ..... 380(424)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르 Call to Worship ...시 12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1(시 14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254(18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살후 3: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낙심하지 말라”...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 .....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 김정제 권사  
 성 경 ..... 막 2:13-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레위를 부르시다”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원박수강김복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I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이엔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호산나	구민영	김예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2. 리브가 전도회 월례회 / 14일(주) 3부예배 후 엘리베이터 앞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네번째인 세례식이 10월 21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10월 14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시30분부터 문답 총정리가 있으며 오후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이경진(성형외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결 혼 1. 신준형 군(16교구 故 신현철 집사, 박연옥 권사의 장남)과 정재원 양(정윤성, 정숙경 씨의 장녀) / 10월20일(토) 오후 3시30분 더체플랫칭담 3층 커피지홀(421-1121) /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서틀버스 운행) ◆ 장례 1. 故 김진락 성도(16교구 정을순 집사의 부군) / 10일(수) 별세, 12일(금) 천국환송예배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2명	234명	231명	1,327명	122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0/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7일	헌 금	35,832,900	
	비 품		2,000,000
	찬양운영비		2,080,000
	교회학교운영비		100,000
	선 교 비		1,0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373,500
	통 신 비		463,860
	수도광열비		600,000
	차량유지비		120,000
	환경유지비		444,990
	수선유지비		437,500
	식당운영비		1,047,550
	합 계	35,832,900	8,917,400